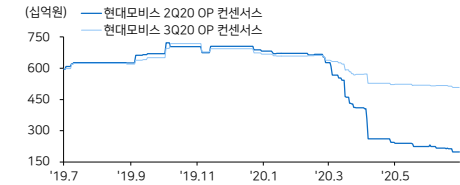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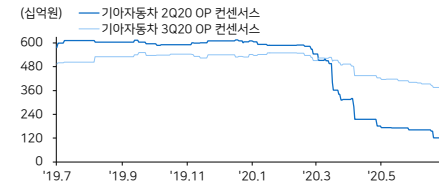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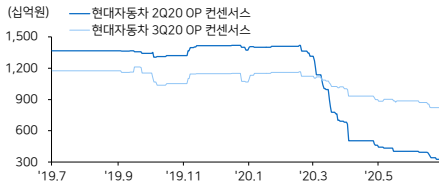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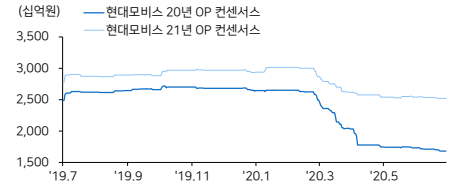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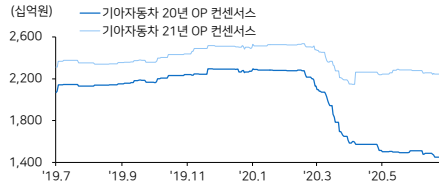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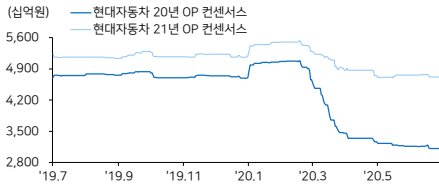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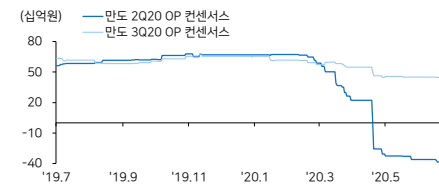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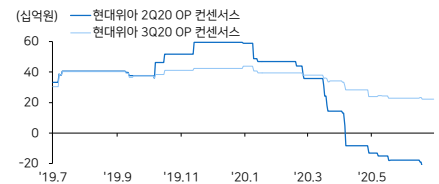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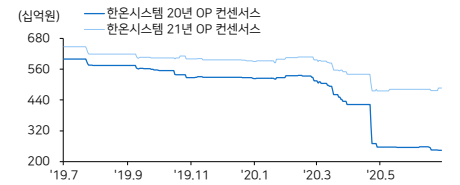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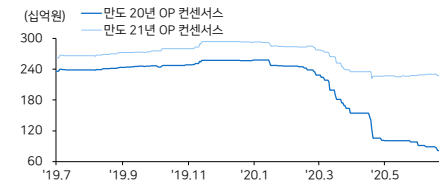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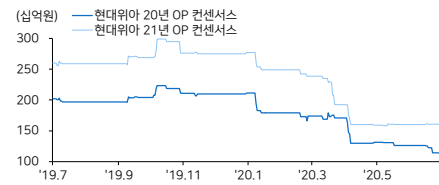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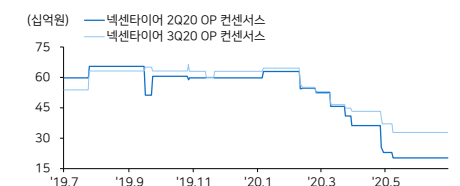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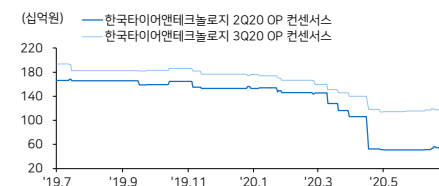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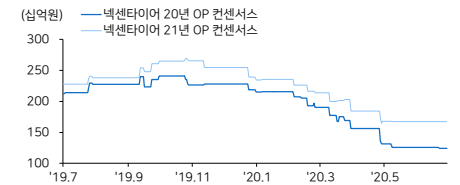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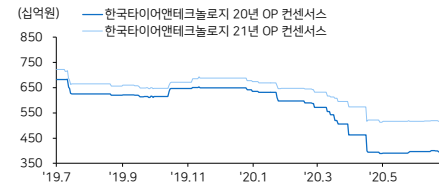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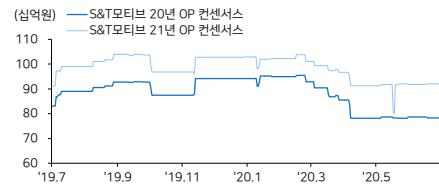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테슬라, 4분기 연속 흑자 달성...S&P500 편입 '청신호' (머니투데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 이로써 뉴욕증시의 대형주 지수인 S&P(스탠다드앤amp;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확보.
<https://bit.ly/32JUUGs>

토요타 제친 '현대차, '베트남 공돌이'가' 집중 (비즈팩트)

베트남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적극적인 신규 투자에 이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며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고 속도를 내고 있음.
<https://bit.ly/32xyFHS>

현대·기아차, 국내 세타 II 엔진 '평생 보증' 본격화 (전자신문)

현대·기아차가 국내 고객과 약속한 세타 II GDI 엔진 평생 보증을 9개월 만에 본격 시행.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세타 II GDI 엔진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
<https://bit.ly/3tjob7X>

미 소비자들이 '테슬라' 품질 형편없지만 최고의 자동차' (파이낸셜뉴스)

미국 소비자들이 테슬라에 대해 모순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 품질로는 최악이지만 감성면으로는 최고의 차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자동차 브랜드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서 테슬라는 1000점 만점에 896점을 받아 1위를 차지.
<https://bit.ly/39mat2g>

환경부, 전기차 구매지원 최대 2025년까지 연장 (Z넷코리아)

정부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최대 5년 뒤로 미루고,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체계도 손볼. 현재 승용차에 국한된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충전소도 확대.
<https://bit.ly/2ZS9WSA>

쓰촨현대, 현대차 독자경영 후 판매량 회복 '시동' (CEO스코어데일리)

현대차의 중국 상용차 법인 쓰촨현대가 현대차 단독 투자 법인으로 변경된 뒤 빠르게 판매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올 상반기(1~6월) 쓰촨현대의 판매대수는 61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2% 늘어난 것으로 집계.
<https://bit.ly/20MB4Mh>

평균 연봉 9600만원인데...현대차 노조 또다시 '돈 더 달라' (한국경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을 월 1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지침인 기본급 6.5% 인상 요구를 그대로 따름.
<https://bit.ly/3hsQ920>

LG·SK 소송에 속타는 포드·VW '전기차 생산차질 우려' (조선비즈)

블룸버그통신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간 법적 분쟁이 주요 전기차 부품 공급 중단과 미국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입장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전달했다고 보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369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